

# 신라시대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신행선사비의 건립\*

- 중대 말 하대 초의 정치변동과 관련하여 -

곽 승 훈\*\*

<目 次>

- |                      |                       |
|----------------------|-----------------------|
| I. 머리 말              | IV. 신행선사의 사상적 경향과 신정권 |
| II.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그 성격 | V. 맺 음 말              |
| III. 신행선사비의 건립과 목적   |                       |

[국문초록] 이 연구는 신라시대 지리산권에서 일어난 佛事活動이 헌덕왕대에 神行禪師碑를 세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신라 중대 말 하대 초 지리산권에서는 경덕왕의 寵臣인 이순의 斷俗寺 창건, 향가를 잘 지은 승려 永才의 지리산 은거, 화엄사 緣起法師의 『화엄경』 寫經, 두운애량의 석남사 비로자나불상과 석탑 조성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발원자들은 대체로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하대 전기 신정권에서는 불교계의 지지를 얻고자 고승추모활동을 벌이었다. 흥륜사 금당에 신라 불교의 발전에 공헌을 이룬 열 분의 성인상을 조성 봉안하는 한편, 여러 고승들의 사상을 추모하는 비석들을 세운 것이 그 사례다. 이 가운데 지리산권에는 선종을 대표하여 神行禪師碑가 세워진다.

신정권에서 신행선사비를 세운 것은 신행이 김씨로 진골 왕족인 점, 선종 승려인 점, 그리고 그의 사상적 경향 때문이었다. 그의 선종사상은 여러 경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사상을 융합시키는 측면이 있었고, 또 공존과 화쟁을 강조하는 범화사상에도 밝은 때문이었다. 이는 신정권에서 원효의 범화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화쟁을 유도한 것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신행의 사상을 주목하여 추모하는 한편 단속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써 단속사를 신정권의 지지세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金憲昌의 난이 일어나 菁州

\* 이 연구는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M0015).

\*\* 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지방 세력이 가담하였으나, 크게 활동하지 못하고 진정되었다. 이는 신정권이 단속사를 후원하면서 회유하여 얻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신행선사비의 건립은 국가에서 선종을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선종은 신라사회에 널리 뿌리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영문초록]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correlation between Buddhist activities around Jirisan(智異山) area in Silla Dynasty and erection of 'Shinhaengsonsabi(神行禪師碑 inscription of Shinhaeng's biography)' during the reign of King Hunduk(憲德王).

Around the middle and late period of Silla, following Buddhist activities took place in Jirisan area: Lee Soon(李純), a royal high officer of King Gyeongduk(景德王), established Dansok Temple(斷俗寺); a monk Youngjae(永才) who wrote Korean folk poetry Hyangga(鄉歌) went into hermit in Jirisan; the Avatamska Sutra was transcribed in Hwaecom Temple(華嚴寺) initiated by the Buddhist teacher-priest Yeongi(緣起); and Virojana Buddha statue and stone tower were created in Seoknam Temple(石南寺). Initiators of such activities were considered to be the supporters of an authoritarian monarchy of King Gyeongduk.

A new sovereign power of the late Silla organized activities in memory of the eminent monks, so as to gain support of the Buddhist sector of society. For instance, statues of the ten most important figures wh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Buddhism of Silla were enshrined in a golden chapel of Heungryun Temple(興輪寺). Moreover grave stones for many eminent monks were erected to commemorate their thoughts. One of these commemorative objects is a representative of the Zen Buddhism, Shinghaengsonsabi erected in Jirisan area.

The motivation for the new sovereign power to erect Shinhaengsonsabi is as follows: Shinhaeng belonged to the Kim(金) family and 'jingol(眞骨)' royal family; he was a Zen Buddhist monk; and his philosophical inclination was appropriate. His Zen Buddhist thoughts were based on the comprehensive knowledge of various scriptures and it was inclusive as well as integrative with various other thoughts. He was also well-informed of the 'Thoughts of the Lotus Sutra(法華思想)' in which coexistence and a 'Theory of Harmonization(和諍思想)' were emphasized. It was within a similar context of promoting the Theory of Harmonization in Buddhism by the new regime based on the Thoughts of Lotus Sutra of Wonhyo(元曉).

Such motivations of the new regime for promoting the thoughts of Shinhaeng also resulted in supporting Dansok Temple. The new regime attempted on convincing people of Dansok Temple to become their supporters. Later, people in Cheongju(菁州) region joined in as a result of the Riot of Kim Heonchang(金憲昌). However it did not encourage any significant activity and was eventually pacified. It is considered to be a strategic gain of the financial support and persuasion by the new sovereign power targeted to Dansok Temple.

The foundation of Shinhaengsonsabi marked an official approval of Zen Buddhism by the state.

As a result, Zen Buddhism began to disseminate throughout Silla which in turn carries a historical significance.

[주제어] 신행선사(神行禪師, Shinhaengsonsa), 법화사상(法華思想, Thoughts of the Lotus Sutra), 원효(元曉, Wonhyo) 지리산(智異山, Jirisan) 영재(永才, Youngjae), 김헌창(金憲昌, Kim Heonchang), 청주(靑州, Cheongju), 단속사(斷俗寺, Dansok Temple), 선종 공인(禪宗 公認, an official approval of Zen Buddhism)

## I. 머리말

신라 역사에 있어 성덕왕대가 전제왕권의 전성기를 구가하였다면, 경덕왕대는 그 기세가 꺾이는 시기였다. 바로 그 시기에 지리산권에서 새로운 불사활동이 일어나고 있다. 경덕왕의 총애를 받은 이순이 단속사를 창건하였으며, 화엄사에서 연기법사가 『화엄경』 사경을 하였으며, 석남사에서 법승 법연의 두 승려가 두온에 랑의 뜻을 받들어 불상과 탑을 조성하였다. 또 경덕왕대에 왕경(경주)에서 활동하던 영재가 원성왕대에는 지리산에 들어와 은거를 하게 된다.

경덕왕대의 전제왕권은 진골귀족들의 저항을 받았는데, 결국 어린 혜공왕대에 반란이 일어나 붕괴되고 하대 원성왕계의 신정권이 들어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교계는 정치세력들과 연계되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 같다. 이를 대비하고자 하대의 신정권에서는 승정기구인 정법전을 정비하여 불교교단을 통제하려 하였다. 하지만 승려들은 강하게 반발하여 나섰다. 이에 신정권은 신라 불교의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한 열 분의 고승들을 선정 소조상을 만들어 흥륜사 금당에 봉안하는 한편으로 그들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는 등 일련의 고승추모활동을 벌이며 불교계를 달래었다.

이처럼 전제왕권이 붕괴되는 무열왕계의 중대 말기로부터 새로 원성왕계의 신정권이 확립되는 하대 초기에 이르기까지 불교와 정치가 결합되어 혹은 맞물리기도 하고 혹은 대립되고 있었다. 바로 그러한 과정에서 지리산권에서 일어난 네 가지의 불사활동 사례는 주목하여 좋을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단속사에는 신행선사의 공덕을 추모하는 비석이 세워지는 데, 이는 지리산권이 신정권에서 주목한 주요대상임을 잘 알려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본 연구는 바로 그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정치변동과정에서 나타난 지리산권에서의 불사활동이 신정권에서 신행선사비를 건립하는 것

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sup>1)</sup>

이를 위해 먼저 중대 말 하대 초에 일어난 불사활동을 검토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음 신정권에서 고승추모활동을 추진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신행선사비를 건립하는 목적이 지리산권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알아본다. 나아가 신행선사의 사상적 경향이 신정권이 추구하는 정책과 연관되는 점을 조명하여 본다. 끝으로 신행선사비의 건립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정리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 Ⅱ. 지리산권의 불사활동과 그 성격

### 1) 단속사 창건

단속사는 경덕왕 7년(748)에 이순(준)이 창건한 절로 다음의 기록이 참고 된다.

- A① 또 別記에 다음과 같이 있다. 경덕왕대에 直長 李俊-高僧傳에는 李純으로 되어 있다.이 있었는데, … 禿髮 7년 무자에 나이 50이 되자 槽淵小寺를 改創하여 큰 절로 만들고 斷俗寺라 이름지었다(『三國遺事』 5, 避隱 信忠掛冠).
- ② 大奈麻 李純은 왕의 寵臣이었는데 홀연히 하루 아침에 세상을 피하여 산으로 들어가서 여러 차례 불렀으나 나가지 않고 剃髮하고 중이 되어 왕을 위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이에 居하였다(『三國史記』 9, 景德王 22년).

먼저 『삼국유사』의 기록으로부터 李純(俊)이 나이 50에 이르러 조연소사를 개창

---

1) 단속사와 신행선사 및 비의 건립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이외의 글들은 이어지는 주석 참조).  
金光植, 『高麗崔氏武人政權과 斷俗寺』, 『建大史學』 7, 1989;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民族社, 1995.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呂聖九, 『神行의 生涯와 思想』, 『水頓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1992.  
鄭善如, 『新羅 中代末·下代初 北宗禪의 受容 -丹城斷俗寺神行禪師碑文을 중심으로-』, 『韓國古代史研究』 12, 한국고대사학회, 1997.  
宋憲準, 『斷俗寺의 創建 이후 歷史와 廢寺過程』, 『南冥學研究』 9,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0.

하여 단속사를 세우고 출가하여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2)</sup> 다음 『삼국사기』에서는 이순의 단속사를 창건했을 때 발원의 하나가 국왕 곧 경덕왕을 위해 세운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순이 세운 단속사의 규모는 잘 알 수 없는데, 현재에는 金堂址 앞에 좌우로 3층석탑과 당간지주 등을 비롯한 일부 석조물만이 남아있다.<sup>3)</sup> 금당 後壁에는 경덕왕의 眞影을 그려넣었다고 한다.<sup>4)</sup> 이외에도 단속사에는 率居가 그렸다는 維摩像이 있었다고 傳하며,<sup>5)</sup> 단속사에서 활동한 선종 승려인 神行禪師의 비문이 전한다. 신라시대에 세운 건물이 16세기 중반까지 남아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사천왕상이 그려진 사실로 보아 금당은 아니었을 것 같다.<sup>6)</sup> 이로서 생각하면 이순이 처음 창건하였을 때에도 그리 작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순은 관등이 비록 5頭品이 오를 수 있는 최고 관등인 대나마에 머물렀으나 6두품으로 여겨지며, 경덕왕의 寵臣으로서 專制王權의 지지자였을 것이다.<sup>7)</sup>

## 2) 화엄사 『화엄경』 사경

경덕왕대에 화엄사에서 『華嚴經』(80권본) 寫經이 이루어진 것은 유물의 일부가 발견되어 알려지게 되었는데,<sup>8)</sup> 다음은 발문의 일부이다.

- 
- 2) 단속사의 창건자와 시기에 대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두 기록이 서로 다른데, 이순이 경덕왕 7년(748)에 창건한 사실에 대해서는 李基白, 『景德王과 斷俗寺·怨歌』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p. 219~223 참조.
  - 3)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山淸 斷俗寺址』,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2002, pp. 17~38 참조.
  - 4) 경덕왕의 초상은 『三國遺事』 5, 避隱 信忠掛冠 條에 信忠이 모신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 역시 이순이 걸어놓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李基白, 위의 글, 위의 책, pp. 219~222).
  - 5) 『三國史記』 48, 列傳, 率居 및 李基白, 위의 글, 위의 책, p. 226 참조.
  - 6) 斷俗寺 … 寺在峯下 凡百有餘間 中大殿曰普光 景泰中重創寺 … 庭右有一閣 新羅所創 壁有四王畫像 金碧尙新 … 然四王眞 甚奇古 非道子畫 卽金生筆(단속사 … 절은 봉우리 밑에 있다. 사옥이 모두 1백여 칸이나 되는데, 가운데 큰 법당이 보광전이다. 경태연간(1450~1456)에 이 절을 중창하였다. … 뜰 오른 쪽에 누각 하나가 있는데, 신라시대에 창건한 것이다. 그 벽에 사천왕의 화상이 있는데, 금빛 푸른 빛이 아직도 선명하다. … 그러나 사천왕의 화상은 매우 기이하고 예스럽다. 도자의 그림이 아니면 바로 김생의 그림이리라. 李陸, 『遊智異山錄』 『靑坡集』; 최석기 외 역, 『용이 머리를 숙인 듯 꼬리를 치켜든 듯』, 보고사, 2008, pp. 18~19. 더욱 宋憲準, 앞의 글, pp. 416~424 참조.
  - 7) 李基白, 『新羅 六頭品 研究』 『省谷論叢』 2, 1971; 위의 책, pp. 45~46 및 pp. 51~63 참조.
  - 8) 黃壽永, 『新羅 景德王代의 白紙墨書 華嚴經』 및 李基白, 『新羅 景德王代華嚴經 寫經 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 1976; 『韓國古代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96; 文

B 天寶 13년 갑오 8월 1일에 시작하여 을미년 2월 14일에 일부를 모두 다 이루었다. 조성한 발원은 皇龍寺의 緣起法師가 하시었으니, 첫째는 은혜를 주신 아버님의 願을 위한 것이며, 둘째는 法界의 일체중생이 모두 佛道를 이루게 하고자 함이다.<sup>9)</sup>

위에서 『화엄경』의 사경은 천보 13년 곧 경덕왕 13년(754)에 시작되어 이듬해 2월 14일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경의 이유는 첫째로 은혜를 주신 부친을 위함이고 다음으로 일체중생이 모두 佛道를 이루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발원자인 연기법사는 화엄사의 創建祖師로서 烟氣(起)로도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이 사경을 발원한 해는 『華嚴寺事蹟』에서 화엄사가 重創되었다고 한 연대와 일치한다.<sup>10)</sup>

화엄사의 창건과 중창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내력을 밝히기는 어렵다. 현존하는 화엄사의 규모가 비록 훗날 壬辰倭亂을 겪은 뒤에 重修된 모습이지만 역시 작은 규모가 아님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화엄사의 중건이 연기법사 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신라 華嚴十刹이 5岳을 중심으로 세워졌다는 점과,<sup>11)</sup> 佛國寺와 石佛寺가 개인의 발원에 의한 것이지만 국가의 理想에 부응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화엄사가 창건 혹은 중창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기의 신분이나 家系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렇지만 황룡사 승려인 점, 사경과 공양탑 등을 조성하는 등의 사실과 다른 사례들로 미루어 보아 재력이 있는 6두품 이상의 귀족이 아닐까 한다.<sup>12)</sup> 또 화엄사는 큰 규모의 사찰이었다. 따라서 연기는 황룡사에 籍을 두고 화엄사에 功建된 州統이었을지도 모르겠다.<sup>13)</sup>

明大, 『新羅 華嚴經 寫經과 그 變相圖의 研究(1)』 『韓國學報』, 一志社, 1979; 한국문화재연구회, 『新羅白紙墨書 大方廣佛華嚴經』, 문화재청, 2000 참조.

9) 天寶十三載甲午八月一日初 乙未載二月十四日 一部周了成內之 成內願旨者 皇龍寺緣起法師爲內賜 第一恩賜父願內彌 第二法界一切衆生皆成佛道 欲爲以成賜乎(『新羅 白紙墨字 大方光佛華嚴經 寫經 跋文』; 李基白 編,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p. 26).

10) 黃壽永, 『新羅 景德王代の 白紙墨書 華嚴經』, pp. 123~124.

11) 李基白, 『新羅 五岳의 成立과 그 意義』 『震檀學報』 33, 1972;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p. 210~214.

12) 진골이 아니었다면 적어도 6두품에 해당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13) 李基白·黃壽永, 『新發見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 『歷史學報』 83, 1979, p. 47의 이 기백 발언.

3) 석남사 비로자나불 및 3층 석탑 조성

다음은 경남 산청군 삼장면 소재 內院寺에 봉안되어 있는 毘盧遮那佛<sup>14)</sup> 안에서 발견된 蠟石製石函에 새겨진 銘文이다.

C 永泰 2년 병오 7월 2일 法勝·法緣 두 승려는 함께 받들어 돌아가신 豆溫愛郎의 발원을 위해 석비로자나불을 이루어 無垢淨光陀羅尼와 함께 石南巖 觀音巖 중에 두었다. 願하여 바라는 것은 두온애랑의 靈神이나 두 승려나 ... 일체 모두가 三惡道의 業이 소멸되고 비로자나로부터 곧 평등하게 깨닫고 세상을 떠나지기를 誓願하나이다.<sup>15)</sup>

위 내용에 따르면 법승·법연 두 승려가 죽은 두온애랑의 발원을 받들어 석비로자나불과 무구정광다라니(곧 이 불경에 의거해 만든 석탑을 가리킴)<sup>16)</sup>를 조성하여 봉안한 것으로 밝혀주고 있다. 따라서 원 시주자는 두온애랑임을 확인할 수 있다. 발원 내용은 비로자나불로부터 곧 평등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떠나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 구절에서 ‘평등한 깨달음(等覺)’은 華嚴思想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sup>17)</sup> 이로써 보면 법승과 법연은 화엄종계의 승려였음을 알 수 있다.

두온애랑의 신분이나 가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름에 ‘郎’의 명칭이 있는 것으로 보아 花郎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이 같은 추론에 문제가 없다면 두온애랑은 화랑으로서 진골의 신분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sup>18)</sup>

14) 이 불상은 內院寺 근처의 보선암지에서 반출된 것이라 한다. 자세한 경위는 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坐像』, 『考古美術』 168, 1985 참조. 그러나 본래의 절 이름은 銘文에 의해 석남사임을 확인할 수 있다. 불상의 조성과 양식에 대해서는 文明大, 『智券印毘盧遮那佛의 成立問題와 石南巖寺毘盧遮那佛像의 研究』, 『佛教美術』 11, 東國大博物館, 1992 참조.

15) 永泰二年丙午七月二日 釋法勝 法緣 二僧 并內奉過去爲飛賜豆溫愛郎願爲 石毘盧遮那佛成內 無垢淨光陀羅尼并 石南巖觀音巖中在內如 願請內者 豆溫愛郎靈神賜那 二僧等那 ... 一切皆三惡道業滅 自毘盧遮那是 等覺 去世爲 誓內之(『永泰二年銘 毘盧遮那佛 造像記』;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編, 『譯註韓國古代金石文』 3,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1993, pp. 316~317; 이하 ‘『금석문』 3’이라 약칭함).

16) 3층 석탑과 석등의 遺構도 함께 남아 있다(朴敬源, 『永泰二年銘 石造毘盧遮那佛坐像』, pp. 1~3). 이것으로 보아 석남사는 새로 지어진 절임을 짐작할 수 있다.

17) 文明大, 앞의 논문, pp. 87~88.

18) 두온애랑이 專制王權과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성격의 소유자였을까 하는 것은 관정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뒤따른다. 다만 그가 죽기 전에 절의 창건을 발원한 것으로 보아 그가 이전에 중앙에서의 政爭에 관여 하였을지도 모른다. 물론 이 경우도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朴敬源은 소년이라는 추측을 해보았다(『永泰二年銘

4) 승려 영재의 지리산 은거

원성왕대에 승려 영재가 지리산에 은거한 사실이 찾아진다.

D 승려 永才는 천성이 익살스럽고 사물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鄉歌를 잘했다. 만년에 장차 南岳에 은거하려 하여 大峴嶺에 이르러 도적 60여명을 만났다. 도적이 그를 죽이려 하니 영재는 칼날을 대하고서도 겁내는 기색이 없었으며, 화평한 태도로 대했다. 도적들은 이상히 여겨 그 이름을 물으니 영재라고 대답했다. 도적들은 평소부터 그의 이름을 들었으므로 이에 그에게 노래를 짓게 했는데 가사는 이렇다.

자기 마음에 형상을 알지 않으려 하던 날은,  
멀리 □□ 지나쳤고 이제는 숨으러 가고 있노라.  
오직 그릇된 파계주를 만나 두려워할 모습에 또다시 돌아가리.  
이 칼이사 지나고 나면 좋은 날이 곧 썰 것이러니,  
아아, 오직 요만한 善業은 새집이 안 됩니다.

도적들은 그 노래에 감동하여 비단 두 단을 그에게 주니 영재는 웃으면서 사절했다. “재물이 지옥으로 가는 근본임을 알고 바야흐로 깊은 산중으로 피해 가서 일생을 보내려 하는데 어찌 감히 이것을 받겠는가?”하며 그것을 땅에 던져버렸다. 도둑들은 그 말에 감동되어 모두 가졌던 칼과 창을 모두 버리고 머리를 깎고 영재의 제자가 되어 함께 智異山에 숨어 다시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영재의 나이 거의 아흔이었으니 元聖大王의 시대이다(『三國遺事』 5, 避隱 8, 永才遇賊).<sup>19)</sup>

위 내용에서 영재가 도적을 만난 대현령의 위치는 알 수 없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나타나는 바와 지리산으로 가는 길목인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경주의 근처로서 청도 지역에 있는 한티재(大峴)로 여겨진다. 그가 향가를 잘했고, 그래서 도적들이 그 이름을 알고 있어 향가를 부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sup>20)</sup> 또한 그가 은퇴하려 간 시기가 원성왕대로 나이가 90이었으므로 그가 서울(경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한 시기가 다름 아닌 경덕왕대임을 알겠다.<sup>21)</sup> 또 경덕왕은 두 해가 나타나자

石造毘盧遮那佛坐像』, p. 9). 그러나 이 경우 소년과 승려 두 사람과의 관계가 전혀 해명되지 않는다.

19) 이 향가의 해석은 이재호의 번역에 따른 것이다(이재호 옮김, 『삼국유사 2』, 솔, 1997, pp. 398~399).

20) 成昊慶, 「향가 愚賊歌의 창작배경 고찰 -清道郡 ‘大峴(한재)’ 일대와 작품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韓國學報』 93, 一志社, 1998, pp. 44~53 참조.

21) 원성왕대(785~789)를 790년대로 가정할 경우 경덕왕대는(742~764) 750년대가 되는데,

月明師를 불러 「兜率歌」를 지어 이를 물리쳤으며, 「讚耆婆郎歌」로 유명한 충담사를 궁궐로 불러서는 「安民歌」를 짓게 한 바가 있다.<sup>22)</sup> 이로 미루어 볼 때 향가를 잘한 것으로 이름이 난 영재가 경덕왕과도 밀접한 관계였을 것으로 보아 그리 무리는 아닐 듯싶다. 이런 그가 신정권의 원성왕대에 지리산으로 은거하러 가는 모습은 단속사의 창건자로 경덕왕의 지지자였던 이순의 모습과 유사하다. 이로서 보면 그 역시 하대 전기의 신정권을 거부한 느낌이 든다.<sup>23)</sup>

이상에서 중대 말 하대 전기에 걸쳐 지리산권에서 이루어진 불사활동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에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단속사의 창건은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발로된 것이었다. 원성왕대에 영재가 아흔의 나이에 지리산에 은거하는 것은 신정권의 활동을 마땅히 생각지 않는 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점에서 영재는 경덕왕의 지지자로서 보아진다.

다음 화엄사의 『화엄경』 사경과 석남사의 비로자나불상 및 석탑의 조성은 화엄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로서 이들 모두가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화엄사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일승사상에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을 듯싶다.<sup>24)</sup>

이 때 그의 나이는 50대 전후가 되어 원숙한 활동을 할 수 있던 시기다.

22) 『三國遺事』 5, 感通 7, 月明師兜率歌 및 同 2, 紀異 2, 景德王 忠談師 表訓大德.

23) 60인의 도적을 화랑의 殘匪이거나 아니면 당시 정치권에 반대하는 반왕당파세력으로 보는데, 더 좁히어 김주원계 세력으로 본 견해가 있다(朴魯堉, 「遇賊歌에 나타나는 盜賊의 本體」, 『語文論集』 16,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75, pp. 91~99).

이외 「우적가」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 참조.

權在善, 「遇賊歌 語釋考」, 『三國遺事研究』 上,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3.

金承璨, 「遇賊歌 研究」, 『新羅文化』 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90.

申碩煥, 「永才遇賊歌考」, 『語學論誌』 5, 창원대 어학연구소 1991.

24) 당시에 신라인들이 지리산권을 주목하는 배경이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남악으로서 제사의 대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옛날부터 사람들이 신성한 곳으로 여겨온 때문에 자연 동경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엄사나 단속사의 경우 섬진강과 남강에 이르는 길이 그리 멀지 않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지리산에 은둔한다고 하였으나, 여전히 속세와 연결되는 곳이었다. 이 점은 앞으로의 과제로 계속하여 살피고자 한다.

### Ⅲ. 신행선사비의 건립과 목적

중대 말기 전제왕권이 동요되면서 중앙귀족들이 지방에 이주하고 더불어 佛事活動을 이루면서 귀족들과 사원이 결합되어 지방의 실력자로 부상하는 현상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이들의 부상은 결국 해공왕대의 왕위쟁탈전에 즈음하여 96 각간이 서로 다투어 싸우게 되어 전국이 전란의 장으로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을 것이다.<sup>25)</sup> 이에 따라 專制王權을 붕괴시키고 들어선 원성왕계의 新政權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즉위한 원년에 시행한 정법전의 정비였다.<sup>26)</sup> 이를 정비한 의도는 무엇보다도 敎團의 통제를 강화하여 불교가 귀족세력들의 정치적 성장의 근거지가 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데에 뜻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또 정법전의 승관에 임명되는 승려들은 화엄종 교학에 밝았는데, 이는 속인들이 담당하던 업무를 승려가 대신하면서 혹 생겨날 교리 논쟁에 대비하려 한 것이라 여겨진다.<sup>27)</sup>

그러나 이 같은 통제에 대해 불교계가 흔쾌히 받아들일 이유는 없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승려들은 강력하게 반발하여 나섰다. 이것은 元聖王代에 國師로 봉해진 緣會가 지은 『朗智傳』을 비롯하여 『慈藏傳』·『曉師行狀』·『良志傳』 등 다수의 僧傳에 반영된 내용에서 짐작해 볼 수 있다.<sup>28)</sup>

이처럼 하대에는 貴族勢力들과 결합하는 불교에 대한 新政權의 통제와 불교계의 지속적인 반발이 일어나는 등 상황이 복잡하게 얽히어 나타나고 있었다. 이것은 결국 중대 말 하대 초를 지나오는 과정에서 정치와 불교가 결합되어 발생한 혼란으로 보아진다. 그리고 이 문제는 곧바로 시정되지 못하고 오래 계속되어졌다. 이차돈에 대한 추모가 혼백이 출현한 후 50년 여 뒤에 와서야 행해지기 때문이다.<sup>29)</sup> 따라서 불교계의 국가에 대한 시정요구는 이즈음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여지

25) 곽승훈, 『新羅 中代 末期 中央貴族들의 佛事活動』 『李基白先生古稀紀念 論叢』, 一潮閣, 1994;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pp. 68~78 참조.

26) 政官(혹은 政法典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大舍 1인 史 2인으로써 한 官司를 삼았는데, 元聖王 원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僧官을 두고, 승려 중에서 才行이 있는 자를 선택하여 충당하였다. 무슨 까닭이 있으면 교체하고, 정해진 연한이 없다 (중략) 少年書省은 2인 이니 원성왕 3년에 惠英과 梵如의 두 법사로서 이를 삼았다(『三國史記』 40, 雜誌 9, 官職 下).

27) 곽승훈, 『新羅 元聖王의 政法典 整備와 그 意義』 『震檀學報』 80, 1995; 위의 책, pp. 111~116.

28) 곽승훈, 『統一新羅時代 僧傳 著述의 流行과 그 意義』 『韓國學報』 69, 一志社, 1992; 『신라고문헌연구』, 한국사학, 2005 참조.

29) 저 法興王이 즉위한 大同 15년 乙未 이래로 지금 唐 永泰 2년 丙午에 이르기까지 253

는 바, 그것은 불교계 전체의 공통된 입장 외에 개별적인 입장도 있었으므로 이를 일시에 조절하기 어려움이 많았음을 짐작케 해준다.

이에 따라 신정권에서는 불교계를 달랠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다. 신라 국가의 발전에 있어 불교가 공헌을 한 것은 삼국통일과정에서 정신적 단결에 기여한 것이다. 당시의 불교는 호국불교로 이어졌고, 화랑제도의 도입 등에 많은 공헌을 하였다. 그러므로 신라 불교의 발전에 공헌한 승려들을 선양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를 위해 벌인 사업이 바로 고승추모활동이었다. 그 결과 신라 불교의 첫 요람인 흥륜사 금당에 열 분의 성인을 봉안하게 되었던 것이다.<sup>30)</sup> 여기에서 아도와 염축은 불교의 초전자로서 인정되었고, 자장은 계율종 의상과 표훈은 화엄종 안함은 알기 어렵고, 원효를 위시하여 나머지 네 분은 정토신앙을 봉행한 고승들이다. 그리고 초전자와 경덕왕대에 활동한 표훈을 제외하고 나면 모두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후로 활동한 성인들이다. 이는 통일을 전후로 하여 불교가 신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이루었던 점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서 신라 중대에 활동한 고승들이 대체로 제외된 것은 위에서 살핀 바 불교가 귀족세력과 결합되면서 일어난 정치적 폐단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이전의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없지 않은 것 같다.

신정권의 고승추모활동은 다음과 같이 추모비의 건립으로도 나타났다.<sup>31)</sup>

년이다. 이 때 老魄이 채찍을 들고 배회하며 邑際에 이르러 옛 무덤을 바라보니(『栢栗寺 石幢記』 『금석문』 3, p. 283).

이 내용은 元和 13년(憲德王 10년 818)에 異次頓을 추모한 石幢記에 실린 것이다. 이 차돈이 殉教한 때는 법흥왕대이고 추모 사업이 행해진 해는 元和 13년이다. 여기에는 唐 영태 2년(惠恭王 2년 766)에 이차돈의 옛 무덤 근처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음을 기록한 것인데, 이 해는 大曆 3년(혜공왕 4년 768) 신라의 귀족들이 심한 다툼을 벌였던 2년전이다. 아마도 이 해에 변란에 앞서 어떠한 祥瑞가 나타났다고 보아진다. 그런데 이 일이 있던 후 두 혼백에 대한 위로를 50 여 년이 지난 헌덕왕대에 이르러 행하고 있다. 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았던 상황을 짐작케 한다.

30) 동쪽 벽에 앉아 서쪽으로 향한 진홍 塑造像은 我道·獸羈·惠宿·安舍·義湘이요, 서쪽 벽에 앉아서 동쪽으로 향한 진홍 소조상은 表訓·蛇巴·元曉·惠空·慈藏이다(『三國遺事』 3, 塔像 4, 東京 興輪寺 金堂十聖).

31) 광승훈, 『신라 하대 전기 고승추모비의 건립』 『한국고대사연구』 25, 2002; 『통일신라시대의 정치변동과 불교』, 국학자료원, 2002, pp. 149~161 참조. 위 표에서 하대 전기라 한 것은 대체로 원성왕대~헌덕왕대로 넓게 범위를 잡은 것이다. 보다 엄밀히 살핀다면 김연승이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서 미루어 애장왕대~헌덕왕대로 좁혀질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韓基汶, 『新羅下代 興輪寺와 金堂 十聖의 性格』 『新羅文化』 20, 2002, pp. 171~195 참조.

<표 1> 통일신라시대 건립 고승추모비 일람표

비 명 (주요활동기)	찬 술 자	건립 시기 (추정)	근 거	비고
『我道和尚碑』 (未鄒王代)	韓奈麻 金用行	(中代)	『三國史記』 4, 法興王 15년 『三國遺事』 3, 阿道基羅 同, 原宗興法猷髑滅身 『海東高僧傳』 1, 法空傳	홍륜사 금당십성
『誓幢和上碑』 (文武王代)	승려 △ 초고 유학자 改撰?	哀莊王代 (800~808)	유물 일부 현존	홍륜사 금당십성
『神行禪師碑』 (景德王代)	國相兵部令 金獻貞	憲德王 5년 (813)	『大東金石書』 탁본 『海東金石苑』 탁본	禪宗
『異次頓殉教碑』 (法興王代)	승려 一念 초고 유학자 改撰?	헌덕왕 10년 (818)	유물 현존	홍륜사 금당십성
『安含碑』 (善德王代)	翰林 薛某	(下代 전기)	『해동고승전』 2, 安含傳	홍륜사 금당십성
『孚石本碑』 (문무왕대)		(하대 전기)	『삼국유사』 3, 前後所將舍利	홍륜사 금당십성
『勝詮碑』 (문무왕대)		(하대 전기)	『삼국유사』 4, 勝詮髑髑	華嚴宗
『憬興碑』 (神文王代)	승려 玄本	(하대 전기)	『삼국유사』 5, 憬興愚聖	法相宗

먼저 주목되는 것으로 위에서 살핀 홍륜사 금당에 봉안된 십성들에 대한 추모비가 있음을 알게 되는데, 이는 비석을 세워 그 사상적인 내용을 담는 것으로 결코 단순한 추모활동이 아니었음을 가르쳐준다.<sup>32)</sup> 다음 십성에서 제외된 다른 승려들로 화엄종의 승전법사 범상종의 경흥국로 선종의 신행선사가 주목된다. 이는 위 십성이 갖는 한계 즉 종파적 편향을 보완하려고 한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서 승전법사에 대한 추모비는 김천의 갈항사지에 있었던 것으로 이는 원성왕 외가의 원찰임이 확인되고 있다.<sup>33)</sup> 따라서 그에 대한 추모는 자연스럽게 선정될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 경흥은 문무왕의 유조에 따라 신문왕대에 國老로 봉해질 정도로 이름이 있었다.<sup>34)</sup> 경흥은 범상종 승려로 구백제 출신이었으므로 구백제 계인들까지 고려한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이

32) 金煥泰, 『新羅十聖考』, 『韓國學研究』 2,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1977; 『新羅佛教研究』, 民族文化社, 1987; 曠승훈, 『新羅 下代 前期 興輪寺 金堂 十聖의 奉安과 彌勒下生信仰』, 『韓國思想史學』 11, 韓國思想史學會, 1998; 위의 책, 참조.

33) 二塔 天寶十七年戊戌中立在之 甥姊妹三人 業以成在之 甥者 零妙寺言寂法師在跡 姊者 照文皇太后君姊在跡 妹者 敬信太王姊在也(『葛項寺 石塔記』, 『금석문』 3, p. 277).

34) 『三國遺事』 5, 感通 憬興愚聖.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활동이다. 이 비는 이후 선종 승려들이 입적한 뒤 세워지는 비석들의 모범이 되었다. 고려시대에는 각 종파별로 승려들의 공헌을 살피어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신라에서는 <표 1>의 추모비들을 제외하고는 선종 이외의 종파 승려들을 대상으로 비석을 세운 사례를 아직까지는 확인되는 바가 없을 정도이다. 따라서 이 때 신정권에서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비를 건립하는 의도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고승추모활동을 추진한 것은 하대 신정권으로서 국가가 주체였다. 하지만 이를 주도한 사람은 각간 김언승으로 후일의 헌덕왕임이 여러 사실들을 통해 확인된다. 그는 어린 조카 애장왕의 섭정으로서 실권을 행사하였는데, 바로 그 시기에 『서당화상비』를 건립하고 있다.<sup>35)</sup> 특히 이 비문에는 원효의 화쟁사상을 추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당시의 정치적 혼란과 관련지어 볼 때 불교와 정치의 화쟁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정을 짐작케 한다.<sup>36)</sup>

이어 그는 애장왕을 시해하고 헌덕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이후에도 추모사업은 계속되어졌다. 그 결과 『신행선사비』를 세우고 이어 『이차돈순교비』를 세우게 된다. 『신행선사비』는 법상종의 경홍 화엄종의 승전이 있는 것에서 보아 우선 선종 승려에 대한 포용이었다고 여겨진다. 이어 『이차돈순교비』에서는 불교를 처음 전파하고자 했던 법흥왕과 이차돈 두 혼백의 대화를 담아 불교 초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었다.

그런데 당시 선종은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발전하고 있었고, 기성교단의 권위를 벗어나는 취지가 강조되었으므로 그 이상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진다. 더욱 앞서 살핀 것과 같이 단속사는 물론 지리산권에서 불사활동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대체로 친경덕왕 성향의 인물들이었으므로 신정권으로서는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대상들이었다.

하대를 열은 원성왕계의 신정권에서는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중대 말 하대 초 왕위계승의 우선순위문제이다. 이 때 원성왕은 무

35) ‘角千金彦昇公 海岳精乾坤秀 承親’·‘心委命 志在虔誠 尊法重人(『高仙寺 誓幢和上碑』, 『금석문』 3, p. 6) 및 『三國史記』 10, 哀莊王 즉위조. 더욱 <표 1> 참조.

金相鉉, 『新羅 誓幢和上碑의 再檢討』, 『蕉雨 黃壽永博士古稀紀念論叢』, 通文館, 1988.  
곽승훈, 『哀莊王代 誓幢和上碑의 建立과 그 意義』, 『國史館論叢』 74, 1997; 『新羅金石文研究』, 韓國史學, 2005, pp. 130~131.

36) 就中十門論者 … 空空之論雲奔. 或言我是 言他不是 … 遂成河漢矣. … 譬如青藍共體 水水同源, 鏡納萬形 … 通融 聊爲序述, 名曰 十門和諍論(『高仙寺 誓幢和上碑』, 『금석문』 3, p. 6); 곽승훈, 위의 글, pp. 145~152.

열왕계의 김주원보다 아래였지만 군신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오르게 된다.<sup>37)</sup> 그 결과 김주원계로부터 보이지 않는 알력을 겪게 되었다. 더욱 헌덕왕이 애장왕의 섭정으로 활동하였으므로 반대파로부터 정치적 견제를 받기 이르렀던 것 같은데, 이는 결국 그가 조카를 시해하고 왕위에 오르는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로서 반대파들로부터 의롭지 못한 국왕으로서 비판을 받는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헌덕왕은 반대파들의 움직임에 대해 주도면밀하게 움직였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대파의 대표 인물인 김헌창을 중앙의 직무에 두지 않고 지방의 장관에 발령하여 정치적 세력의 확장을 못하게 하였다.

F 5년(813) 봄 정월에 이찬 憲昌을 무진주 도독으로 삼았다.

6년(814) 가을 8월 무진주 도독 헌창이 들어와 시중이 되었다.

8년(816) 봄 정월에 시중 헌창을 내보내 菁州 도독으로 삼고 璋如를 시중으로 삼았다.

13년(821) 여름 4월 시중 金忠恭이 죽었으므로 이찬 永恭을 시중으로 삼았다.

청주도독 헌창을 웅천주 도독으로 바꾸었다.<sup>38)</sup>

김헌창은 헌덕왕 5년에 무진주도독으로 나아간 뒤 이듬해 시중이 되어 중앙의 정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다시 1년 여 뒤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菁州(지금의 진주)도독에 임명되고 다시 웅천주 도독으로 옮겨졌다.<sup>39)</sup> 이는 그를 계속해서 지방장관으로 보내어 중앙에서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무진주의 근무는 지리산권 서부 지역으로 중앙의 정치무대와 다소 떨어진 셈이 된다. 하지만 이는 구백제지역으로 신라에 반기를 들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청주에서는 5년 4개월여를 근무하였다. 이는 장기 근무를 통하여 지역사정에 밝을 수 있었고 자신에게 친근한 세력을 기를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구가야권으로 반신라적 정서가 없지 않은 곳이어서 주목된다.<sup>40)</sup>

37) 『三國史記』 10, 元聖王 원년 및 『三國遺事』 2, 紀異 원성왕 조.

38) 五年, 春正月, 以伊滄憲昌爲武珍州都督. 六年 秋八月, 武珍州都督憲昌, 入爲侍中. 八年 春正月, 侍中憲昌出爲菁州都督, 璋如爲侍中. 十三年, 夏四月, 侍中金忠恭卒, 伊滄永恭爲侍中, 菁州都督憲昌, 改爲熊川州都督(『三國史記』 10, 憲德王).

39) 청주는 10개 군을 관할하는데, 州治는 지금의 진주지역이다.

40) 혜공왕 15년(779)에 金庾信의 魂魄이 昧鄒王陵에 나타나 후손들이 죄없이 죽음을 당한 것에 대해 신라를 떠나겠다는 불만을 미추왕의 혼령에게 토로하였는데, 왕이 이를 듣

이에 따라 헌덕왕은 그를 웅천주로 전임시키게 되었다. 이는 청주가 插良州보다 떨어져 있으나 수도 경주에 비교적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멀리 떨어진 웅천주로 개입시킨 것이었다. 물론 이곳 또한 구백제지역이어서 반신라적 정서를 가진 곳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중앙에서의 정치적 성장을 막고자 한 것이었으나, 반대로 지방에서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다. 결국 이 같은 김현창의 지방관 근무는 후일 그가 난을 일으킬 때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

다음으로 단속사의 정치적 입장이다. 단속사를 창건한 이순은 경덕왕의 지지자였다. 말하자면 하대 신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은 자연 반대파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또한 단속사가 속세와 단절한다고는 하나 위치가 깊은 산 속에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남강과 진양호에 이르는 길이 그리 멀지 않으며, 따라서 청주의 중심지인 지금의 진주 지역을 접근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상적 경향에 있어서도 선종이라는 점이 부담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단속사는 신정권에서는 주시해야 할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sup>41)</sup>

더욱 경덕왕대에 향가를 잘하여 이름이 있었던 영재도 원성왕대에 들어와 지리산 속에 은거하였다. 그가 은거한 때가 만년이고 향가를 잘하여 도적들조차도 그 이름을 들을 정도였으므로 신정권에서는 지리산권 역시 관심 대상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그가 은거한 위치가 지리산권 어느 쪽이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물론 헌덕왕대에는 신행이나 영재 모두 생존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영향이

---

고 두려워하여 金敬信(뒤의 원성왕)을 보내어 김유신의 능에 가서 사과케 하고 福田을 바쳐 冥福에 도움되게 한 사실이 있다(『三國遺事』 1, 紀異, 末鄒王竹葉軍 및 『三國史記』 43, 金庾信傳 下). 이는 해공왕대의 변란과정에서 희생된 김유신의 자손들에 대한 伸冤運動이 일어났고 또 그것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말하여 준다(李基白, 『新羅 惠恭王代の 政治的 變革』 『社會科學』 2, 1958; 『新羅政治社會史研究』, 一潮閣, 1974, pp. 247~252). 더불어 후일 흥덕왕이 김유신을 興武大王으로 추봉한 사실은 이를 뒷받침 한다(『삼국사기』 42, 김유신전 하).

이는 결국 구가야권이 신정권의 대우에 따라 언제든지 반대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신정권은 김현창의 부임에 앞서 신행선사비를 건립하여 단속사에 우호적 입지를 다져 놓고자 한 것 같다. 이런 까닭에 김현창을 청주지역에 장기간 묶어둘 수 있었다고 여겨진다.

41) 청주 지역에서 단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중요한 것은 고려 무인정권 시기에 최이의 아들인 만종이 주지가 되어 횡포를 부린 사실로 미루어 추측해 볼 수 있다(宋憲準, 『斷俗寺의 創建 이후 歷史와 廢寺過程』 『南冥學研究』 9,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0, pp. 409~415; 金光植, 『高麗崔氏武人政權과 斷俗寺』 『建大史學』 7, 1989; 『高麗武人政權과 佛敎界』, 民族社, 1995, pp. 273~291).

그리 강하게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는 앞서 살핀 바 「이차돈순교비」의 내용 즉, 영태 2년 법흥왕과 이차돈의 혼백이 출현하여 대화를 한 것에 대한 추모를 50년이 넘는 헌덕왕대에 비로소 비석을 세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면 그리 무리가 아닐 듯싶다.<sup>42)</sup> 이는 영태 2년 무렵의 정치 혼란이 헌덕왕대에도 계속하여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신행이나 영재가 입적하였지만 그 영향이 계속 이어졌다고 보아 그리 무리가 아닐 듯싶다.<sup>43)</sup>

그러므로 신정권에서는 그 후속세대들이 김헌창 세력과 연계되는 것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여겨진다. 이에 따라 신정권은 그들을 회유할 필요가 있었다. 결국 적절한 방법의 하나로 신행의 사상을 기리는 추모비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이다. 신행이 선택된 것은 그가 멀리는 왕족 출신이고, 선사 안홍 형의 증손이라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다.<sup>44)</sup> 그런데 안홍은 흥륜사 금당에 봉안된 십성중의 한 분인 안함 성인과 동일인으로 파악되고 있다.<sup>45)</sup> 따라서 신행은 신정권과 연계된 인물임을 생각지 않을 수 없다.<sup>46)</sup> 이로서 신정권은 지리산권과 청주 지역으로부터 우호적인 후원세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이 김헌창의 난이 일어난 뒤 지리산권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대응에서 짐작이 가능하다.

G 14년(822) 3월에 웅천주 도독 헌창이 그의 아버지 周元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長安이라 하고, 연호를 세워 慶雲 원년이라 하였다.

무진주, 완산주, 靑州, 사벌주의 네 주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仕臣 및 여러 군·현의 수령들을 위협하여 자기 소속으로 삼으려 하였다. 청주 도독 向榮이 몸을 빠져나와 推火郡으로 달아났고 한산주, 우두주, 삼량주, 패강진, 북원경 등은 헌창의 반역 음모를 미리 알고 군사를 일으켜 스스로 지

42) 앞의 주 29) 참조.

43) 신행의 경우 제자인 삼륜선사의 발원으로 추모비가 세워진다. 따라서 신행의 영향이 헌덕왕대에도 여전히 미치고 있음을 자연히 알겠다. 더욱 뒤의 IV장 참조.

44) 禪師俗姓金氏東京御里人也級干常勤之子先師安弘之兄曾孫(『斷俗寺 神行禪師碑』, 『금석문』 3, p. 18).

45) 안함과 안홍이 동일인임을 상세히 고증되었으므로 여기서는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는다(辛鍾遠, 『安弘과 新羅佛國土說』, 『新羅初期佛教史研究』, 民族社, 1992, pp. 232~237).

46) 신행선사가 경덕왕의 충신 이순이 세웠으므로 신정권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렇지만 김주원 역시 경덕왕과는 반대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제자인 삼륜선사가 김헌창을 지지해야 하는 입장에 서 있을 필요 또한 없었다.

켰다. 18일에 완산주 長史 崔雄과 州助 아찬 正連의 아들 令忠 등이 서울로 도망해 와 그 일을 알렸다. 왕은 곧 최웅에게 급찬의 관등과 速舍郡 태수의 관직을 주고 영충에게는 급찬의 관등을 주었다. (중략)

이 때 현창은 그의 장수를 보내, 요충지를 차지하고 관군을 기다렸다. 張雄이 적병을 道冬峴에서 만나 격파하였다. 衛恭과 悌凌은 장웅의 군사와 연합하여 三年山城을 공격하여 승리하고, 속리산으로 진군하여 적병을 격멸하였다. 균정 등은 星山에서 적과 싸워 격멸시켰다. (중략) 敵良州의 屈自郡은 적군에 가까이 있었으나, 반란에 물들지 않았으므로 7년간의 조세를 면제해 주었다(『三國史記』 10, 憲德王 14년).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무진주, 완산주, 청주, 사벌주의 네 주 도독과 국원경, 서원경, 금관경의 사신들이 협박을 당하였다고 하나 이들은 이미 협력을 약속하였던 것 같다. 이 난은 9주 5소경 및 패강진 가운데, 한산 우두 삼량 패강 등만이 가담을 앓고 있었다.

완산주는 도독이 응하였으나 하급관리인 장사와 주조는 도망하여 가담하지 않았다. 반대로 청주 지역은 도독 향영만이 도망하였는데, 이는 휘하의 지방 세력들은 가담하였음을 의미한다. 이곳에서 김현창이 5년여를 근무하면서 그들을 잘 포섭한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도독이 움직이지 않은 때문인지 커다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전투는 성산 즉 지금의 성주와 도동현 즉 지금의 영천 지역에서 벌어지나 패배한다. 청주의 군사가 어디로 움직였는지 정확히 단정하기 어렵지만, 남강을 돌아 낙동강으로 나아가 북상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는 굴자군 곧 지금의 창녕 지역이 반란에 가담하지 않아 막혀 활동을 제대로 못하였던 것 같다. 뒤에 창녕군이 조세를 7년간을 면제받는 것에서 보아 이들의 저지가 중요했음을 알겠다. 이에 북쪽으로 군사를 움직였다면 무진주 즉 지금의 광주에서 남원을 지나오는 병력과 합세하였을 가능성이 높는데, 결국은 정부군에게 패배를 당하였다. 어떻든 이는 지리산권에서 움직인 군대의 성세가 그리 세지 못하였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sup>47)</sup> 이런 점에서 신정권이 단속사에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고 지원한 것은 기대 이상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김현창의 난은 국호를 새로 세우고 일어난 것으로 실제 그 규모나 성격면에서 커다란 전란과 마찬가지로 아니다. 이는 이전처럼 중앙귀족들 내에서의 반란이 아니고

47) 당시 반란군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의 내용 참조.

朴勇國, 『新羅 憲德王代 金憲昌의 亂과 진주지역』 『퇴계학과 한국문화』 37, 2005, pp. 249~279

朱甫墩, 『新羅 下代 金憲昌의 亂과 그 性格』 『한국고대사연구』 51, 2008, pp. 233~279.

중앙의 귀족세력과 지방세력의 충돌이었다.<sup>48)</sup> 그런데 지방 세력들의 대부분은 예전의 신라를 제외한 나머지였다. 이로서 구백제는 물론 구가야 지역의 향배는 신정권만이 아니라 신라 통일 정권이 풀어야 할 숙제였다. 그리하여 이후 지리산권 지역은 신라 정부로부터 주목을 받게 되었다. 신정권은 여러 가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교를 통한 유화책의 사용이었다.

H 태화 7년 3월 일 靑州 蓮池寺 종을 이루었다. (중략) 成典 和上은 惠門 법사와 □惠 법사이다. 상좌는 則忠 법사이며, 都乃是 法勝 법사이다. 卿인 村主는 三長 급간과 朱雀 대나마이며, 作韓舍는 寶淸 군사와 龍年 군사이다. 史六 □는 三忠 사지 行道 사지 成博士는 安海哀 대사와 哀忍 대사이다. 이때의 주통은 황룡사의 覺明 화상이다.<sup>49)</sup>

H는 태화 7년(833)에 靑州(지금의 진주) 지역의 연지사에서 범종을 조성하고 그 일을 맡았던 승려와 俗人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이다. 내용을 보면 주종사업의 최고 책임자로서 和上인 혜문법사 등이 있고, 또 村主들이 나서서 일을 도운 것으로 되어 있다. 시주자는 밝히지 않았는데 촌주 이하 속인 모두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성박사와 주통 각명화상이다. 우선 성박사는 주종 기술을 가진 박사로 이들은 아마도 중앙에서 파견된 장인으로 판단된다. 이는 주종과 같이 또 다른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것은 중앙과의 협조가 없을 때에는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통은 이 지역에 파견된 승관인데, 주요 사업에는 이들이 파견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sup>50)</sup> 이들 모두는 중앙의 명령을 받고 일을 수행한 것 같은데, 결국 이 사업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진행된 것이 짐작된다. 이를 지원한 것은 아무래도 김헌창 난 때의 진주지역 동향과 관계가 깊은 것이 아닐 수 없다.

48) 위의 글 참조.

49) 太和七年三月日 靑州蓮池寺鐘成內節. (중략) 成典和上 惠門法師 □惠法師 上坐 則忠法師. 都乃 法勝法師 卿村主 三長及干 朱雀大乃末 作韓舍 寶淸軍師 龍年軍師 史六□ 三忠舍知 行道舍知 成博士 安海哀大舍 哀忍大舍 節州統 皇龍寺 覺明和上(『蓮池寺鐘銘』; 『금석문』 3, pp. 397~398).

50)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안양의 경우도 주목된다(寶曆 二年 丙午 八月朔六辛丑日 中初寺 … 丁未年 二月卅日了成之 節州統 皇龍寺 恒昌和上 上和上 眞行法師 (하략); 『中初寺幢竿石柱記』; 『금석문』 3, p. 285). 생략된 내용은 작업에 임한 직책과 그 담당자들의 인명인데 모두가 승려이다. 여기서도 주통이 파견되어 감독을 하였다. 한산주 도독 김범문의 반란 등과 연계해보면 중앙의 지원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연지사종의 경우와 비슷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여진다.

다음 남원지역에 홍척선사가 들어와 실상사를 창건하고 남종선을 펼치었는데, 그 세가 자못 컸었던 것 같다. 흥덕왕과 宣康太子가 그를 궁궐에 초빙하여 설법을 듣고 귀의하여 제자가 된 사실과, 이를 두고 당시에는 “北山에는 道義요 남악에는 홍척”이라는 말이 돌은 사실에서 짐작할 수 있다. 이후 실상사에는 수철화상이 주석하면서 계속하여 선풍을 이어 나갔다.<sup>51)</sup>

흥덕왕은 헌덕왕의 동북형제로 형과 함께 애장왕을 시해하고 형을 이어 나란히 왕위에 올랐다. 따라서 그가 홍척의 실상사 개창을 도와주고 또 왕자와 함께 수계를 받고 제자가 되는 것은 신정권이 지리산권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었음을 잘 알려주는 것이다.<sup>52)</sup>

신정권이 이처럼 지리산권을 중시한 것은 주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또한 국가에서 선종을 공인한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이후 신라사회에서 선종이 널리 확산될 수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헌덕왕대 신행선사비의 건립은 신라 사회에 선종이 널리 퍼지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또한 있는 것이다.

#### IV. 신행선사의 사상적 경향과 신정권

이처럼 국가가 나서서 신행선사비를 건립하는 것은 그의 사상적 경향이 나라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한 때문이었을 것이다. 완전히 똑같은 취지로는 불가능한 것이지만, 어느 정도 일치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적을 회유한다고 해도 도리어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교학의 권위를 부정하고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선종이어서 더욱 그렇다.

신행의 사상은 『楞伽經』을 중심으로 능가선을 행하는 북종선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는 중국에 유학하여 북종선의 대가 神秀의 3대 제자인 志空으로부터 선종사상을 공부하였다. 따라서 그의 사상을 살피기에 앞서 먼저 신수의 선사상을 알아본다. 신수의 선사상은 『觀心論』과 『大乘無生方便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51) 新羅洪直禪師法嗣二人 興德大王 宣康太子(『景德傳燈錄』 11) 및 北山義 南岳陟(『鳳巖寺智證大師塔碑銘』).

高翊晉, 『新羅 下代の 禪 傳來』 『韓國禪思想研究』, 1984; 『韓國古代佛教思想史』,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9, pp. 489~490.

52) 앞서 언급하였듯이 흥덕왕이 김유신을 흥무대왕으로 추봉한 것 역시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주 40) 참조).

『관심론』은 마음의 內觀을 중시하여 마음만을 관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으로 좌선에 들어가 看心看淨하여 우리들의 깨끗한 마음을 덮고 있는 오염된 망념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다. 즉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고 깨끗한 마음을 얻음을 쉽 없이 닦아 나간다는 점에서 신수의 선법은 漸修적인 頓悟라 하겠다.

『대승무생방편문』은 다섯 종류의 대승경론에 의거하여 도에 들어가는 방법을 체계화한 것이다. 이것은 『起信論』에 의해서 佛體를 설명하고, 『法華經』에 의해서 지혜를 설명하며, 『維摩經』에 의해서 不思議法을 설명하고, 『思益經』에 의해서 正性を 설명하며, 『화엄경』에 의해서 無異를 설명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북종선의 대의를 “번뇌를 여의고 청정을 보며 방편으로 모든 경전을 사용한다(拂塵看淨 方便通經)”는 의미를 엿볼 수가 있다. 이러한 대승경전을 통해 도에 들어가는 방편을 설한 것은 이전의 一行三昧나 守心の 내용보다는 수행의 길을 한층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한 것이다.<sup>53)</sup>

신수의 이 같은 취지는 지공에게 이어졌고, 다시 신행에게 이어진 것 같다. 이는 비문에 “도의 根氣가 있는 이에게는 看心の 一言으로 가르치고 그릇이 좀 익은 이에게는 방편으로 多門을 보이어 깨닫게 했다. 一代의 秘典에 통하고 삼매의 증명을 전하니 이는 바로 佛日이 동방의 해돋는 곳에서 다시 솟고 法雲이 동방에 다시 일어난 것이다.”라고 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sup>54)</sup> 여기에서 신행의 교시가 ‘간심’과 ‘방편다문’으로 표현된 것이 위의 『관심론』에서 말하는 坐禪看心과 『대승무생방편문』의 方便法門을 계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sup>55)</sup> 이 같은 그의 사상적 경향을 정리해보면, 말없이 卽心無心으로 표현한 선의 세계는 이전에 대했던 三學 등으로 표현되는 교종의 세계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교종의 도움을 방편 삼아 壁觀을 통해 看心을 하여 깨닫게 되면, 以心傳心の 경지인 目擊에 다다른다는 것이다.<sup>56)</sup>

그리고 『대승무생방편문』에서 다섯 가지의 경전을 방편으로 정하여 공부를 하도록 한 것은 그가 여러 경전을 섭렵하여 융섭할 수 있는 바탕을 갖게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그의 사상에는 여러 교학사상과 신앙이 담기게 되었다. 본래 북

53) 鄭性本, 『中國 禪宗의 成立史 研究』, 民族社, 1991, pp. 398~493.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편, 『曹溪宗史 高僧세편』, 조계종출판사, 2004, p. 77.

54) 然後還到雞林 倡導群蒙 爲道根者 誨以看心一言 爲熟器者 示以方便多門 通一代之秘典 傳三昧之明燈 寔可謂 佛日再杲自暘谷 法雲更起率扶桑(『斷俗寺 神行禪師碑』, 『금석문』 3, p. 20).

55) 정성본, 『新羅 禪宗의 研究』, 民族社, 1995, pp. 21~22.

56) 추만호, 『나말려초 선종사상사 연구』, 이론과 실천, 1992, pp. 42~43.

종선은 법상종과 밀접하였는데, 신행 역시 마찬가지로 이해되었다. 관련된 내용이 그의 비문에 전하고 있음은 물론, 제자 삼륜선사 역시 법상종 출신에서 개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신행은 유식학 외에도 여래장사상을 표방하고 있는 『유마경』을 수용하였다. 여래장사상은 『능가경』과 『대승기신론』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어 이후 화엄사상 속에 흡수되어 성행하게 되었다. 『능가경』의 사상적 내용은 유식뿐만 아니라 화엄도 포함하고 있어 서로 반대되는 사상을 조화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대승기신론』과 연관된 여래장사상은 원효의 활동을 통하여 신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이는 북종선이 원효의 법맥과도 연결될 소지를 갖는 것이 되었다.<sup>57)</sup>

이 같이 『능가경』이 여러 대립되는 사상을 조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점에서 보아 신행 역시 같은 입장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대승기신론』과 관련된 것은 원효의 화쟁사상과도 연결되는 것이었다. 이 같은 그의 사상적 경향은 다른 교종의 종파들과 연결되 서로 조화될 소지를 지니고 있었음을 잘 알려 준다.

신행의 사상적 경향은 비문의 서문에도 잘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법화경』의 구절이 인용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 I① 그래서 아직 배우는 이든 다 배운 이든 겨우 향기로운 절밥을 맛볼 뿐이요,  
 ② 二乘이든 三乘이든 어찌 藥樹의 과일을 얻을 수 있으리요.<sup>58)</sup>

먼저 I①에서 아직 배우는 이는(有學) 불교의 진리를 알고는 있지만, 아직 미혹됨을 완전히 끊지 못하여 더 배워야 할 여지가 있는 자를, 다 배운 이는(無學) 배움이 완성되어 더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말한다. 이는 『法華經』의 學無學授記人品에 설해진 것이다. 여기에는 부처님이 아난존자와 라후라에게 미래에成佛할 것이라는 수기를 주면서, (有)學無學 2천인도 마찬가지로 함께 授記를 받는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들이 수기를 받게 되는 것은 전세로부터 부처님의 처소에 나서 교화를 받은 때문이었다.

비문은 신행선사도 바로 그와 같은 수기를 받으신 분으로서 역시 前世로부터 수행과 공덕을 쌓은 인연 때문임을 말하고 있다.<sup>59)</sup> 이는 단속사에서 신행선사의

57) 呂聖九, 『神行의 生涯와 思想』 『水頓朴永錫教授華甲紀念 韓國史學論叢』 上, 探求堂, 1992, pp. 359~365.

58) ① 故有學無學 纔嘗香鉢之飯 ② 二乘三乘 寧得藥樹之菓(『斷俗寺 神行禪師碑』, 『금석문』 3, p. 17).

59) 況乎經年累代 積行成功 深之又深 其極致歟 粵若位登五七 聲亘三千 紹佛種傳法燈 卽我

교화를 받은 이들도 有學 無學人들과 마찬가지로 내세에는 같이 성불할 수 있다는 수기를 받게 되는 것도 된다.

I②는 다음 이승이나 삼승 역시 방편으로 일불승사상을 설명한 것으로 『법화경』 方便品에 설해진 내용이다.<sup>60)</sup> 비문에서 藥樹의 과일은 깨달음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을 이승이나 삼승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는 뜻으로 쓰인 것이라고 여겨진다. 『법화경』의 내용처럼 이승이나 삼승은 방편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일불승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또한 이는 불교의 사상이 다양하지만 중생의 근기에 따라 부처님께서 설법을 달리한 것일 뿐으로서, 깨달음을 얻은 뒤의 결과는 한 가지 맛(一味)으로서 같은 것임을 일깨운 것이다. 따라서 교종이나 선종이나 법상 혹은 화엄은 방편일 뿐이며, 모두 한 가지 맛의 깨달음에 귀결되므로, 교리에 따른 차이로 인해 깨달음의 결과까지 차이가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이 근기에 따른 차이가 있으면서도 공존하듯이, 불교의 여러 교리 역시 차이가 있지만 마찬가지로 공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화경』에서 강조한 일불승사상은 각 종파간의 우열 논쟁이 아닌 공존을 천명하는 것임을 알겠다. 이로서 자연 화쟁에 이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sup>61)</sup>

한편 신정권의 원성왕은 『법화경』을 봉행하는 緣會를 국사로 삼았다. 연회의 사상적 계보는 그가 지은 『朗智傳』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여기에는 법화사상의 봉행자인 낭지가 智通과 원효를 가르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그것이 다시 이어져 연회에게로 모아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연회의 사상적 경향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법화사상을 수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나아가 그는 원효가 화쟁사상을 설명하는 근원인 법화사상을 이어 받았을 것이므로 자연 원효의 화쟁사상에도 밝았다고 여겨진다.

원효의 화쟁사상은 부처가 중생들의 根機에 따라 설법을 달리하여 나타난 것이므로, 서로 옳고 그르다 是非할 대상이 아님과 동시에 共存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런데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 부처의 설법이 다른 바로 『법화경』의 내용에서

神行禪師受其記焉(하물며 여러 해 여러 세대에 걸쳐서 수행을 쌓고 공덕을 이루어 깊고 또 깊게 그 극치를 이룸에 있어서라. 더구나 지위가 35불(佛)의 단계에 오르고 명성이 온 세계에 뻗쳤으며, 부처의 씨앗을 잇고 법의 등불을 전함에 있어서라. 곧 우리 신행선사께서 그러한 수기를 받으셨다. 『斷俗寺 神行禪師碑』, 『금석문』 3, p. 18).

60) 시방 세계 각국에는 一乘法만 있을 뿐 二乘 三乘 없으니 方便 말은 버릴지니 일부러 거짓말로 중생 인도한 것이라 부처 지혜 말하려고 출현하신 부처님 이 一만이 오직 眞實 이승 삼승 方便일 뿐 小乘으로 아무래도 중생 제도 못하니 부처님이 大乘으로 얻은 바가 그와 같아(李耘虛 譯, 『法華經』, 東國大學校 譯經院, 1990, p. 61).

61) 광승훈, 『신라 하대 전기의 신정권과 법화사상』 『韓國思想史學』 32, 2009, pp. 162~168.

비롯된 것이었다. 원효의 『화엄중요』에서도 諸法相의 존재를 인정하는 법화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로 미루어 보면 연희의 사상에는 공존을 강조하는 법화사상이 짙게 깔려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겠다. 또한 그것에는 근기의 차이에 따른 차별을 두지 않는 인간의 존엄을 강조하여 화쟁사상을 유도하고 있었다고 여겨진다.

이를 토대로 신정권에서는 원효의 사상을 이어 받은 연희를 국사로 임명하여 도움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下代에는 원효의 화쟁사상에 대한 추모가 행해져 『서당화상비』를 세우게 되었다. 이를 통하여 불교계는 물론 정치 사회에 이르기까지 화합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고 여겨진다. 더욱 『法華經』의 會三歸一의 會通思想은 신라의 삼국통일사상과도 연결되었는데,<sup>62)</sup> 이것은 통일 이후 구백제와 구고구려 유민들에게 다시금 화합의식을 고취시키고자 한 것이 아닐 수 없다.<sup>63)</sup> 또한 법화사상의 一佛乘思想을 통해서 王權의 권위를 뒷받침 받고자 하였을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같이 신정권에서는 공존과 화쟁을 담고 있는 법화사상을 적극 수용하고, 또 그것을 미루어 원효의 화쟁사상을 내세워 여러모로 화합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는 앞서 살폈듯이 흥륜사 금당에 열 분의 성인을 모시고, 여러 고승들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는 등 일련의 고승추모활동을 통해 능히 알 수 있다. 이로서 교단의 화쟁을 도모하고 또 귀족연립정권 하에서 정치권의 화쟁을 도모하는 한편 구백제와 구고구려 유민들에 대한 회유와 화합까지도 도모한 것으로 여겨진다.<sup>64)</sup>

더욱 열 분의 성인에는 법상종과 선종 출신의 승려들이 제외되었는데, 법상종으로는 경흥이 선종으로는 바로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비를 세움으로서 그 한계성을 보완하게 되었다. 여기서 신행선사비를 세우게 된 것은 그의 사상적 경향이 신정권에서 추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북종선은 『능가경』을 토대로 하여 화엄 유식 등을 아울러 여러 대립되는 사상을 조화시킬 수 있었고, 또 『대승기신론』과도 관련된 것은 원효의 화쟁사상과도 연결될 소지를 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신행은 일불승사상을 강조하는 법화사상에도 밝았는데, 이는 공존과 화쟁사상을 잘 담는 것이었다. 이 같은 그의 사상적 경향은 원성왕대 국사에 임명된 연희가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법화사상을 이해했고, 그것을 통하여 원효의 화쟁사상에도 밝았던 점과 잘 일치한다.

62) 若我天下 佛教流行 蠕動之類 得昇人天 國豐民安 可通三韓 亦廣四海(『元和帖』: 李基白編, 『韓國上代古文書資料集成』, 一志社, 1987, p. 38 및 『栢栗寺 石幢記』 『금석문』 3, p. 283).

63) 이 부분은 필자가 생각지 못한 것으로 논평자의 교시를 받은 것이다. 깊이 감사드린다.

64) 광승훈, 위의 글, pp. 174~181.

이 같은 신행의 사상적 경향은 제자인 三輪禪師에게도 계승되었다. 이는 그가 유식사상에 밝은 점이 확인된다.<sup>65)</sup> 더하여 삼륜 역시 법화사상에 밝았다. 비문에 그가 신행의 사상을 흠모하면서 추모비를 세우고자 할 때에 신행의 가르침을 장자(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유하여 인용한 내용에서 알 수 있다.<sup>66)</sup> 이같이 신행의 사상이 삼륜을 통하여 헌덕왕대에도 계속 계승되어졌으므로, 국가에서는 그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다. 더하여 앞서 설명했듯이 그가 김씨 왕족의 후손이었던 점도 일부 작용하였다고 보아진다.

## V. 맺음 말

이상에서 신라 중대 말 하대 초에 이르는 동안 지리산권에서 일어난 불사활동을 살펴보고, 그것을 헌덕왕대에 신행선사비를 세우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알아보았다.

중대 말 하대 초 지리산권에서는 다음 네 가지의 불사활동 사례가 일어났다.

단속사의 창건은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정치적 입장에서 발로된 것이었다. 원성왕대에 영재가 아흔의 나이에 지리산에 은거하는 것은 신정권의 활동을 마땅히 생각지 않는 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런 점에서 영재는 경

65) 呂聖九, 앞의 글, pp. 360~363.

66) 慈愛로운 아버지가 玉을 품고 돌아오고 가난한 아들이 보배를 얻은 지가 얼마나 되었던고(夫慈父懷玉而歸 窮子得寶幾日: 『斷俗寺 神行禪師碑』, 『금석문』 3, p. 22). 이는 『법화경』의 신행품에 나오는 것으로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한 長者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다. 그 아들은 어려서 아버지 슬하를 떠나 他國으로 갔다. 그 후 큰 부자가 된 아버지는 후계자 문제로 고심하면서 아들을 찾하고자 하였다. 그때 마침 아들은 으리으리한 장자의 집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장자가 그를 알아보고 잡아두려 하였으나 아들은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이에 장자는 方便을 사용하여 가난한 두 사람에게 아들이 거름 푸는 일을 할 수 있게 설득하도록 부탁하였다. 아들은 이를 받아 들어 20년 동안이나 거름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 후 장자는 죽기 전에 아이에게 모든 비밀을 밝히고 재산과 노비가 모두 그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후계자로 삼았다.

여기서 자애로운 아버지는 신행선사이며, 아들 궁자는 신행의 불법을 따르는 삼륜선사를 비롯한 도속제자 모두를 비유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고사를 비유하여 궁자인 제자들이 신행의 가르침을 계승하려면 상을 세우고 글을 지어 전해야 한다고 삼륜선사가 주장하여 중앙의 정치계와 협조하여 추모활동을 주도한 것이다. 이 때 그 역시 법화사상에 밝았음을 알 수 있겠다.

덕왕의 지지자로서 보아진다.

화엄사의 『화엄경』 사경과 석남사의 비로자나불상 및 석탑의 조성은 화엄사상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로서 이들 모두가 경덕왕의 전제왕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 하지만 화엄사상의 근본적인 취지가 일승사상에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그것을 지지하는 입장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나을 듯싶다.

중대 말 하대 초의 정치변동이 일어나면서 불교는 중앙의 귀족세력들과 결합되어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대비하여 하대의 신정권에서는 정법전의 정비를 통하여 불교계를 통제하려 하였지만, 불교계는 승전의 저술을 통하여 강하게 반발하였다. 다시 신정권에서는 흥륜사 금당에 신라 불교의 발전에 공헌을 이룬 열분의 성인상을 조성 봉안하는 한편 그들의 사상을 추모하는 비석을 세워 불교계를 위로하였다. 이어 금당 심성에서 제외된 종파의 승려를 더하여 법상종의 경흥 화엄종의 승전 선종의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런데 신행선사비의 건립은 정치적 문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신정권에서는 반대파인 김헌창을 지방관으로 파견하여 중앙에서 그의 정치적 성장을 막고자 하였다. 그 결과 무진주 청주 용천주의 도독으로 파견하였는데, 이 지역들은 구백제와 구가야 지역으로서 반신라적 정서가 강한 곳이었다. 특히 청주 지역은 5년여에 걸쳐 장기간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신정권에서는 단속사를 후원하면서 신행선사에 대한 추모비를 세우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단속사를 신정권의 지지세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였다. 이후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 청주지방 세력이 가담하였으나, 크게 활동하지 못하고 진정되었다. 이는 신정권이 단속사를 후원하면서 회유하여 얻어진 결과로 여겨진다.

신정권에서 신행선사비를 세운 것은 신행이 왕족인 점, 선종 승려인 점 등이 작용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의 선종사상이 신정권에서 추구하는 것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북종선은 『능가경』을 토대로 하여 화엄 유식을 아울러 여러 대립되는 사상을 조화시킬 수 있었고, 또 『대승기신론』과도 관련된 것은 원효의 화쟁사상과도 연결될 소지를 안는 것이었다. 또 신행은 일불승사상을 강조하는 법화사상에도 밝았는데, 이는 공존과 화쟁사상을 잘 담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그의 사상적 경향은 신정권에서 원효의 법화사상을 바탕으로 불교계의 화쟁을 유도한 것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신행의 사상을 주목하여 추모하는 한편 단속사를 지원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아진다. 그리고 이 신행선사비의 건립은 국가에서 선종을 공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선종은 신라 사회에 널리 뿌리내리게 된다는 점에서 또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것이다.

新羅文化 第34輯

[논문투고일 : 8월 9일, 논문심사완료일 : 8월 13일, 논문게재확정일 : 8월 20일]